

나를 이끄시는 분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 제23회 외무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제23회 외무고등고시 합격
- 주몬트리올영사 겸 주국제민간항공기구(ICAO)1등서기관
- 주블라디보스톡영사
- 대통령실 파견 (외교비서관실)
- 주호주공사참사관
- 대통령비서실 파견 (의전비서관실)
- 남아시아태평양국장
- 現) 주호놀룰루총영사



강영훈

I.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 1 : 5)

내가 합격기를 쓰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만큼 고시합격이란 것은 나에게 멀리 있는 것으로만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펜을 들어 여백을 메워 나가려고 하니 지나간 3년이란 시간이 주마등(走馬燈)처럼 스쳐 지나간다. 고시준비기간이 비록 일반적인 사회생활과는 다르지만 그것은 나에게 삶의 소중한 일부로써, 전환기로써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 기간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그분께로 나아가 어둠의 사슬을 끊고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된 이후로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으며 나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넘치도록 주셨다. 나에게 있어 그분의 존재 없이는 수험생활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나는 그분을 통하여 고시의 의미와 내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해야 했으며, 펜을 들어 글을 쓰는 지금도 끊임없이 그분께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또 한 가지 고시준비를 통하여 나는 여러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으며,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 사이의 교제와 연합이 주는 유익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의 영혼이 감수해야만 하는 혼돈과 질서, 증오와 사랑, 유희과 강건한

등등을 바라볼 수 있었으며, 그 영혼의 고통들이 그분이 인도하시는 교제와 연합 가운데 순결함(Die Klare Seele)을 획득함을 알았다. 나의 수험기는 이러한 만남의 연속이었다.

따가운 햇살이 거리를 퍼붓는 지금 꿈을 키우며 책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도 많은 만남이 있을 것이다. 세상 학문과의 만남,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와의 만남 혹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일지도 모르겠다. 모든 것이 삶의 소중한 일부로써, 전환기로서의 의미를 던져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나의 이 부끄러운 글과의 만남이 있는 분들에게도 내가 작은 의미를 던져줄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싶다.

II. 긴 여행

나는 격동기의 대학생활을 겪었던 학번이었다. 80학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쯤 해보았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80년의 서울의 봄은 자취조차도 찾아 볼 수 없는 살벌한 풍경이 청운(靑雲)의 꿈을 안고 대학의 문을 들어선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4월달 후생관에서 시작된 시위주도를 보면서 받았던 충격, 도서관에서 투신자살을 했던 어느 학형의 죽음, 친구끼리 귓속말조차도 주위를 둘러보고 확인한 후에야 가능했던 분위기, 호기심 많던 나의 눈에 비친 현실의 모습은 “혼돈과 부조리(不條理)”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었고, 젊은 혈기는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편지 가운데 “몸 조심하라”는 말씀은 현실과의 관계에서 나의 영혼조차도 “혼돈과 부조리”가운데 던져버리고 말았다.

시간이란 열차를 타고 내가 도달한 곳은 '84년 1월의 추운 겨울밤 대전역이었다. 어머니께 잠시 소풍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나는 슬프도록 파르스름한 머리로 논산훈련소의 문을 들어섰다. 끊임없이 엄습하는 추위와 고된 훈련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뒤엉킨 훈련소 생활을 하며 나는 일종의 희미한 생명력이란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훈련소에서 일 요일마다 찾아간 교회에서의 장엄한 감격과 눈물은 인간에 내재(內在)하는 성스러움과 정결함을 일깨워주었다. 나는 그 때부터 과거를 모두 추억속에 묻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으로 나 자신과 사회에 헌신할 것인가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용산에서 KATUSA로 근무하게 된 나의 자대생활(自隊生活)은 점점 관심을 외무고시로 쫓리도록 만들었다. 현실에 대한 부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군생활은 현실을 보다 균형감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었으며,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처럼 의미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특히 미군과의 생활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나의 귀한 재산으로 여겨졌다.

'86년 4월 꽃피는 봄 어느날, 나는 부대 정문을 뒤로 한 채 걸어나왔다. 정들었던 졸병들의 인사가운데 이제부터 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는데 자유롭다는 사실을 알았다. 군대 가기 전에는 두통과 약한 체력 때문에도 매사에 걸림돌로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것도 깨달았다. '86년에 바라봄 캠퍼스는 화창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는데다가 너무나도 자유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80년대 초 고

시공부에 대한 인식은 “부끄러움” 그것이었는데, '86년 캠퍼스의 분위기는 대학 1학년부터 현실을 뒤로 접어두고 수험준비에 매달리는 후배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인식과 실천의 분리가 자연스럽게 체질화된 후배들을 만나게 될 때면 캠퍼스의 이질화·양극화를 보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어쨌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그리고 고시경쟁률이 과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치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Ⅲ. 외시입문

4학년 1학기를 등록하고부터 경제학·국제법·정치학 과목을 위주로하여 수업을 신청하고 기본서를 사서 읽기 시작했다. 1차과목은 평소에 틈틈이 읽어나가다가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매달리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선택과목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에게서는 아무도 guide를 제공해 주거나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난 후라 빨리 사회진출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번 겨울에 1, 2차를 동시에 합격 하리라는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은 더욱더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조순 경제원론, 이학용 미시경제, 정운찬 거시경제학, 이천표 국제금융론, 김인준 무역론 차례로 독파해 나가고 이병조·김중법 등 국제법을 읽어 나갔다. 열흘에 책 한권을 꼼꼼히 읽어나가다 보니 성취감을 느끼기는 했으나, 막상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써야 한다고 생각 하니 앞이 캄캄해져 오는 절망감을 느꼈다. 게다가 수리적인 설명이 나오면 경제수학을 하지 않은터라 더욱 더 자신감을 잃게 되었다. 국제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해야 될 사항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외우는 것이 딱 질색이었던지라 국제법 교과서는 보기만해도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국제정치학은 특정의 교과서가 없다는 데에서 어문계 전공의 설움을 맛보아야 했다. 박상식 국제정치학과 이철형 문제집이 고작이었다. 몇몇 강의에 들어갔으나 부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다.

또한 지방에서 올라와 유학생활을 하는 나에게 주거문제(住居問題)는 큰 두통거리였다. 여기저기 고시원을 표류하고 다니다보니 심정이 착잡해지기 시작했다. 아주 조그마한 소리에도 예민하게 항의해 오는 사람들을 대하고 나니 더 이상 그 곳에 있고 싶지 않았다. 입이 까다로운 나에게서는 짜고 매운 음식도 - 왜 그렇게 음식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 큰 고통이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정신적 압박감과 환경의 열악함을 견뎌내지 못하고 경기도에 있는 누님집으로 옮겼다. 몸도 마음도 쇠약해졌다. 단지 몇 달간의 공부에 모든 기력이 쇠해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결국 다시 두통이 시작되었는데, 1~2시간 집중해서 책을 보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눈이 피로해서 견디기가 힘들었다. 참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경제학 sub-note를 만들기 시작했고, 선택 과목도 재정학으로 정하여 김동건 교수의 저서를 읽기 시작했다. 국제법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난 후에 20문제 정도를 뽑아서 암기하고, 정치학은 이철형 문제집을 무조건 암기하기 시작했다. 국민운리는 형설출판사 교과서를 2~3회독 할 예정이었다. 어학은 자신감도 있었고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그냥 부딪쳐 보기로 계획을 세웠다. 2차준비를 하느라 마지막까지 1차준비를 늦추다가 한 달 남짓을 전력투구하여 1차에 응시하였다.

늦가을부터 같은 과(科) 친구인 S와 같은 고시원에 있으면서 공부와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와 같이 있다보니 정신적 압박감은 많이 해소되었다. 서로 세상이야기, 시험이야기, 근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긴장을 이완시킬 수 있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한 잔의 차를 곁여 마시며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호흡하곤 했다. 덕분에 돌이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1차에 합격할 수 있었다. 추운 겨울에 같이 응시원서를 접수시키고 손가락이 얼어서 답안지에 동그라미표기를 하기조차 어려운 교실에서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두 번 다시 1차를 응시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막상 2차준비를 하려고 하니 정말 하기 싫은 생각이 들었다. 그저 되지도 않는 공부를 하느라고 도서관을 왔다갔다 하다가 2차시험 첫날 과목인 국민윤리와 영어만을 치루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다보니 내가 지독히도 글씨를 느리게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무리 글을 써도 답안지가 넘어가지 않는 데다가 국민윤리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백지의 고뇌”만이 계속되었다. 결국 나중에 확인한 결과 국민윤리에서 과락이 발생했다. 단지 영어가 79점이란 고득점이 나와서 일말의 희망을 던져 주었다.

IV. 만남 · 만남 · 만남

'87년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다 봄은 어김없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었다. 파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캠퍼스에서 친구의 소개로 S형을 알게 되었다. 그도 지난 겨울 1차에 합격하고 2차를 준비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S형은 외교학과인지라 그 후 강의실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고, 서로 시험에 관한 얘기를 많이 주고 받게 되었다. S형은 모 고시원에서 study group을 통하여 공부를 하던터라 혼자서 독학하고 있는 나보다 아는 것이 많았고, 단편적인 지식들을 조직하는데 뛰어난 재주를 발휘했다. 외시는 과목의 특성상 단순히 내용을 암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과목의 framework를 잡아서 단편적인 지식들을 이 틀 가운데에서 이해하고 이를 현실의 issue에 적용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실제로 현재의 동료들을 보면 한결같이 현실문제에 관해서는 뛰어난 달변가들이었다.

S형은 나에게 낯설은 국제정치학의 세계가 어떤 것들인지 -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전쟁과 평화 등 - 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철형 저 국제정치학 · 문제집을 재해석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조재권 저 「국제정치학」, 이상우 저 「국제관계이론」, 로버트 J. 리버 저 구대열 옮김 「현대국제정치이론」, 박경서 저 「국제정치경제론」과 박상섭 · 하영선 교수의 논문 등을 참조함으로써 국제정치이론에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또 한국과 관련하여 김학준 교수의 「한국문제와 국제경제」, 외교사로서 오기평 저와 W, W II 이후는 이기택 저 「국제정치사」를 꼼꼼히 들여다 보았다. 이렇게 여러 책들을 보다 보니 정치사상과 철학의 빈곤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단편적인 지식들을 연결해 주는 것은 시각, 즉 사상임을 깨닫게 되었다.

여름이 다 가도록 S와 S형과의 만남 이외에는 줄곧 혼자서 책과 씨름을 해야 했는데, 도무지 경제학과 국제법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단편적인 지식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도대체 그것들이 전체와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유명한 교수님들이 책을 저술하는 데에는 그분들의 암기력이 우리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학문의 세계를 분석하는 framework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면 국제법은 주체 사이에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것으로 주체(국가, 국제기구, 개인)·객체(영토, 영공, 영해, 심해저, 우주공간)·조약·관습법·판례·분쟁해결기관과 방법, 나아가 전쟁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시경제는 Pareto최적과 분배, 거시경제는 inf.와 실업·국제수지, 무역론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으로 교과서의 모든 내용들이 환원된다. 이 단순한 사실들을 깨닫고 교과서의 내용들을 다시 재발견하는 데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다. 나무를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우(愚)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름이 다 지나가 버렸다. 교과서를 볼 때는 서문과 목차 그리고 학문의 세계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가볍게 피력한 책의 앞부분이 책의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된다는 것과 group study를 하면 단편적인 지식을 조직화하여 실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이 되도록 결정적으로 나를 괴롭히던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건강과 선택과목의 결정문제였다. 원래 여름을 많이 타는 체질인데다 영양에 신경을 쓰지 않고 고시원생활을 계속한 탓인지 극도의 두통과 이명(耳鳴)현상이 나타나고 자꾸 졸립기만 했다. 1학기에 이미 휴학을 한 상태인데 2학기에도 어쩔 수 없이 다시 휴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다못해 누나의 권유로 함께 한약방에 가서 증세를 말하고 약을 지어다 먹게 되었다. 4일간 약을 달여먹으니 두통과 이명(耳鳴)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생활비, 약값, 책값을 다 감당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게 느껴졌다. 결국 계속해서 약을 달여 먹을 수는 없었다. 선택과목의 결정이란 또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나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 마음이 항상 불안했다. 합격기를 보니 재정학은 점수를 잘 주지 않는다고 하며, 민법총칙과 국제사법은 분량이 적은 타인지 대충 평균적인 점수를 주며, 행정학은 너무 낯설은 데다가 외울 것이 많고, 사회학은 잘 알지 못하는 과목인지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위의 과목들의 교과서를 차례로 사서 1회독씩을 하고 나서 행정법을 선택했다. 이 상규 저 「행정법」을 2회독 정도를 하고나서는 무조건 암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실감각이 없이 추상적인 법률적 표현을 외운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런 일이었다.

결국 행정법도 포기하고 2차시험 석달 전에 사회학으로 또다시 과목을 바꾸어 버렸다. 외시의 선택과목은 과목에 따라 매년 점수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 따라서 후한 점수를 주는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된다. 그러나 나처럼 이과목 저과목으로 옮겨다니는 것은 오히려 합격과는 더욱더 멀어지는 것이다. 어느 과목이 점수를 후하게 줄지는 매년 달라지며, 또 어떤 과목이든지 그것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여 끝까지 밀고 나가면 대체로 좋은 점수도 얻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다른 과목에 보다 더 충실해질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10월의 어느날 낮잠을 청하여 누워 있는데 누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즉시 오라고 하여 달려갔더니 누님과 전도사님이 방에 앉아 계셨다. 당시는 약화된 건강과 시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매우 초조해져있던 상태라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이었다. 전도사님

은 나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고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로서 간구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두통도 사라질 것이라며 안수기도도 잊지 않으셨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 : 1) 라는 말씀처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 이후로 두통도 이명(耳鳴)도 사라져 몰두하여 책을 볼 수가 있었다. 마음이 불안해질 때면 성경을 꺼내어 읽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회복해 나갔다. 성경의 구절이 세상의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것 같았다.

도서실에서 늘상 공부하다 보니 우연히 2차시험을 보게 될 K와 Y를 알게 되었다. study group을 만들기로 하고 이들과 함께 시험생활을 활기차게 만들었다. 토요일에는 같이 토론을 한 다음 저녁식사와 탁구시험을 했는데, 일주일의 모든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같이 어려움을 겪으며 서로 위로를 보내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들은 서록 알고 있는 것을 하나라도 더 상대방에게 전해주기 위해 노력했고, 덕택에 고시잡지의 모범답안의 잘잘못을 가려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도 했다. 단지 K와 나는 시험보기 석달 전에 사회학으로 선택과목을 변경하는 바람에 타과목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힘들었다는 사실만을 제(除)하고는 어느 정도의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었다.

K는 하느님을 향한 신앙이 좋았다. 그는 나에게 고시원 가까이 있는 대학촌 교회를 소개해 주었는데, 경기도에 있는 화평교회로까지 갈 수 없었던 나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었다. 장로님, 전도사님, 집사님들이 모두 신실하신 분이시라 어쩐지 마음이 푸근하게 여겨졌다. 일요일 예배드릴 때에 듣게 되는 찬송은 몇 년 전 훈련소 교회에서 느꼈던 감동을 되살아나게 해주었다. 나는 K와 함께 교회에 나가면서 신앙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나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어느니라.”(요일 5 : 15)는 말씀을 굳게 확신했다. K는 자신도 힘들게 공부하면서 나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잊지 않았다.

그 해 겨울에 우리는 나란히 2차시험을 치루었고 희망섞인 관측에도 불구하고 나란히 불합격의 고배를 들어야 했다. 22회 외시의 커트라인은 57점을 약간 넘는 것이었는데, 우리들 셋은 모두 커트라인을 넘는 점수를 받고서도 국제법 과락의 비운을 맛보아야 했기 때문이다. 어찌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들을 가슴에 안고서 서로를 격려해 주는 수밖에 없었다. 특히 K와 Y는 그 해 안으로 취직하지 않으면 사회진출이 어려워지는 나이인지라 같들이 심한 것 같았다. 나는 달리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느꼈으며, 이번 시험에도 그분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에 달리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재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V. 재도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 : 6~7) 나는 시험에서 실패한 것에 대해 처음처럼 큰 실망을 하지는

않았다. 단지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1년 정도 늦추어진 것 뿐이라는 생각을 했다. 물론 이미 합격한 지인(知人)들을 생각하면 부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지만·····. 처음에는 재도전을 할 것이라고 여겼던 S·K·Y 모두가 신문사에 기자로 다 취직해서 차례로 떠나가 버리자 알게 모르게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부모님의 희생과 1, 2차 동시합격이라는 부담감과 나이를 생각해 볼 때면 시험준비를 계속하는 것이 무모한 짓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평강의 예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상황은 작년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으나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한 번의 실패가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 나간다고 믿었다.

'88년 4월부터는 환중 형과 함께 '독성정' 모임을 같이 시작했다. 매주 한 번씩 과후배들과 모여서 말씀을 읽고 서로의 생각들을 교환하면서 기쁨을 느꼈다. 모임을 통하여 내가 드리는 기원의 응답을 보았으며, 예수님께 속한 자 되었음을 알았다. 환중 형은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롬 8 : 28)는 말로써 다가오는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격려를 해주었다. 성경 모임은 정신적으로도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는데,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는 느낌과 대화를 통한 정서적 안정과 풍요로움을 선물해 주었다. 덕분에 친구들이 떠나간 뒤의 공허를 충분히 메울 수가 있었다.

S·K·Y가 취직하여 혼자 남게 된 나는 마찬가지로 국제법 과목으로 고배를 든 S형 그리고 후배 K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 경제학과 국제법만 합석 커트라인을 넘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국제법에서는 유병화 저(I·II)와 김정건 저를, 경제학은 정창영 저「경제원론」, 박진근 저「국제경제학」을 보강하였으며, 학원에 나가서 경제학 강의를 듣기도 하였다. 여름내내 경제학과 국제법 교과서를 들고 다니며 S형, K와 함께 study와 토론을 했다. S형은 그의 뛰어난 조직력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차츰 국제법과 경제학에 대한 전반적인 틀과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자신감도 생겼다.

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자 1, 2차 동시합격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여 배수진을 치기도 하였다. '86년에 했던 것처럼 12월 중순까지는 최대한 2차를 준비하고, 그 후에는 1차를 짧은 기간에 집중하여 승부를 걸어보기로 하였다. 2차과목은 가을부터는 감량(減量)을 하기로 하여 각 과목을 3일 정도에 1회독 할 수 있는 정도로 줄여나갔다. 어차피 모든 내용을 기억할 수 없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분량을 준비하되 중요성에 따라 강약(強弱)을 주기로 하였다.

국민윤리는 형설출판사 교과서 1권, 영어는 아카데미 TOEFL단어를 다시 확인하고 Korea Herald에서 연설문 등의 Article 몇 개를 뽑아서 집중적으로 그 표현을 암기하는 정도의 분량, 국제법은 2인 공저를 기본교과서로 하되 유병화·김정건 저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간단히 메모하여 옮기는 정도의 분량을 준비하였다. 경제학은 각권에 교과서 1권씩을 선정하되 그 내용 중에서도 불필요한 부분은 미련없이 제해 버렸다. 정치학은 분야별로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메모하여 이철형 문제집을 단권화하였는데, 한국의 대UN외교부문을 빠뜨리는 바람에 이번 시험 큰 문제에서 크게 당황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 사회학은 고영복 저, 김영

동 저 2권을 기본서로 하였다가 고영복 저 「현대의 사회학」의 내용을 간단히 메모하여 김정동 저에 보충함으로써 전과목을 3일 이내에 1회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나마도 내용은 1차와 2차의 짧은 기간 동안에 통독하고 암기하기는 어려웠다. 인간의 기억량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험의 경향을 잘 분석 - 시사문제를 교과서의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거 같다. - 하고, 강약을 주어가며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설명하라.”가 아닌 “논하라.”는 문제(50점짜리)는 그 성격상 그 과목의 전반적인 틀에 입각하여 교과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되는 사항을 논리정연하게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각 과목의 전반적인 틀을 파악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교과서의 목차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각 항목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1차준비에 있어서도 '88년에 문제은행의 pool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므로 새로운 경향에 맞춰 나갈 필요가 있었다. 정치학의 경우가 특히 출제경향의 변화가 많았는데, 이극찬 저 외에 8인 공저를 보강하였으므로 나중에 1차 정치학문제를 풀 때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1차에서 정치학은 처음 외시를 보는 분에게는 난과목(蘭科目)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2차 공부를 미리 해두면 국제정치학 객관식문제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느꼈다. 영어는 Academy Toefl의 단어를 한 번 확인하는 정도에서 그쳐야 했다. 언제나처럼 다른 과목에 매달리다 보면 영어는 항상 그냥 들어가야만 하는 불안을 감수해야만 했다. 국사·문화사는 강정식 문제집의 내용요약이 짧은 시간에 타당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점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문화사·국사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문제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평소에 조좌호 문화사, 이기백 국사를 읽어 두었고, 마지막 순간에 처음부터 줄을 쳐둔 부분을 통독하였다. 헌법의 경우 권영성 저 교과서·문제집을 보았고 조문(條文)을 열심히 보았다. 그러나 막상 헌법문제는 헌법윤리와 통일기구 부분이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느낌을 주었다. 나의 헌법 공부 가 부실한 탓이지만 기본교과서 위주로 착실히 정복해 나가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이 아닌가 여겨진다.

시험이 다가오면서 마음의 긴장이 더욱 커지고 이에 따라 교회에 나가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도 더욱 절실한 것으로 와 닿았다. 교회청년부, 독일어성경모임, 누님, 전도사님...등 많은 분들이 나의 시험준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알았으며,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는 마음의 평화와 심령의 담대함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의심의 영을 끊고,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며, 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S형, 후배 K와 함께 정보도 교환하고 토론도 하는 시간을 식사 후 가졌으며, 함께 교회도 나가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찬바람이 부는 1월에 원서를 접수하고,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답안지를 채워 나간 결과 1차에 합격했다. 이번에는 의심없이 바로 2차준비를 시작해 나갔다. 비록 체력탓으로 처음 하루이틀은 집중이 잘 되지 않았으나 확신이 있었기에 1, 2차 사이의 짧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래의 계획대로 밀어 붙였다. 2차시험이 다가올 때까지 독어와 사회학만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정리된 지식을 머릿속에 넣을 수 있었다.

2차시험의 첫날 국민윤리는 글씨가 제대로 나아가지 않는지라 2시간 동안 초안을 잡을 여유도 없이 써 나갔음에도 6장 반을 쓰고 시간이 다 흘러 답안지를 빼앗겨야만 했다. 손가락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도대체 알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옮겨 쓸 수도 없는 글씨 속도로 무엇을 한다는 말인가! 영어는 늘 70점대를 유지했으므로 큰 어려움은 없었다. 경제학은 문제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40분간 한 자도 못쓰고 공리를 해야 했다. 그동안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 정신이 아찔했지만 “나에게 힘 주시는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력저력 생각나는대로 써나가니 답안지 중에서 4장 반을 쓰고 나올 수 있었다.

국제법은 유병화 저를 읽은 탓으로 큰 어려움없이 답안지를 메울 수 있었다. 경제학의 분량이 적어 걱정이 되었으나 내용은 그런대로 쓴 것 같았고, 따라서 두 번째 날을 무사히 넘긴 셈이었다. 나는 은근히 합격이 기대되는 느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정치학과 독어는 작년에 모두 70점대의 고득점을 받았던 전락과목이었으므로 자신감이 넘쳤다. 셋째날은 큰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을 치루었지만 정치학의 경우 작은 문제에 너무 욕심을 부려 6장을 뺄뻑히 쓰고 나니 큰 문제를 쓰는데 40분 정도만 남아 제대로 “논하지”를 못했고, 독어의 경우도 큰 실수는 하지 않았으나 작문이 조금 까다롭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지막날 사회학은 기본서도 한 번 읽지 못해 12월에 공부했던 기억을 가지고 임(臨)해야만 했다. 금요일 저녁에 나는 책을 집어던지고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 금요기도회에 참석했다. 전도사님이 나의 마지막 시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며, 무엇보다도 편안한 잠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구하셨다.

새벽 3시까지 중요한 부분만을 한 번 확인한 채 잠에 빠져 들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에 하리라.”하신 말씀처럼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맡겨 버렸다. 마지막 사회학과목은 낯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나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논리를 전개해 나갔다. 느린 글씨 때문에 충분히 쓰지는 못했으나 쓰고자 했던 논점을 빠뜨리지는 않았다. 답안지를 채워나가는 순간에도 성령이 나와 함께 힘을 느꼈다.

VI. 맺는 말

3차 면접시에 박노수 대사는 왜 외무부를 직장으로 선택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셨다. 이런 질문은 당시에 의례적인 것으로 보여서 가볍게 대답했다. 하지만 연수생활을 하는 지금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와 닿는다. 이상과 현실의 gap에 대하여 수험준비기에는 생각하기 힘들지 모르나 분명한 목적이 없을 경우 조직인으로서 상당한 실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있게 생각해 보는 것도 후회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뻘어가는 국력이 걸맞게 능력있는 외교관을 길러내기 위하여 교육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외교안보연구원의 교육기간도 1년 반으로 연장되고 어학교육도 보다 더 충실해질 것 같다. 앞으로 많은 유능한 동료들이 외무부에 들어와 사명감과 열정을 불태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나를 인도하셨던 주님이 여러 선후배님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